

웨스트민스터 (36) 소요리문답 강해



십계명의 제1계명은 모든 계명의 기초이며 모든 것이다.

제 45 문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하신 것입니다.(1)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출 20:3)

제 46 문 십계명의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2) 되심을 알고(3) 승인하며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4)

- (2)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신 26:7)
- (3)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대상 28:9)
- (4)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마 4:10)

1. 인간의 유일한 참 예배의 대상

십계명의 첫 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유일하시고 진실하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뿐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배에 합당한 방법(제2계명), 예배에 합당한 태도(제3계명), 예배에 합당한 시간(제4계명)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뿐이라는 것(제1계명)을 확신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건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히 모든 종교가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것은 단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방법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한다.

성경은 이런 범신론을 배격한다. 성경은 오히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고전 8:5,6) 고 말씀한다.

이렇게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만들어 낸 구원을 주지 못하는 거짓되고 허구적인 많은 신(우상)들을 사람들이 참 하나님으로 속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참되시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 낸 그런 것이라면 어느 한 신이 다른 신들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고대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나무, 돌, 은, 금, 등으로 자기들이 섬길 신들을 만들어냈다. 오늘날도 형태는 없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돈, 명예, 자존심, 교만 등과 같은 신들을 만들어낸다. 물론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이러한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허구의 신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치 신이 실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구약시대의 우상들이 단지 나무나 돌에 불과했던 것처럼 오늘

날 사람들의 상상력이 만들어 낸 모든 신들도 인격이나 생명이 없는 우상일 뿐이다.

2. 성경이 가르치는 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經綸)을 가르친다. 육일 만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죽은 자를 무덤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종말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르쳐준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음을 말해 준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위대하신 사역들을 말해준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신격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며 그러나 본체와 능력과 영광이 동등한 한 하나님이시라는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나님을 말해준다. 그래서 진실 되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롬 10:14)

3. 성경을 통해서만 바로 알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로 많이 알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단정하기 쉽지 않다. 갈보리 십자가 위의 예수님 오른 편 강도는 아마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또한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배워야 하는 것과 같은 삼위일체의 교리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가 자기 옆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써 구원자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인정하고 의심 없이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그 믿음과 태도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원 받은 이 강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많이 알고 입으로는 믿는 자라고 하면서 실제 행위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참 구주로 믿지 않는 오늘 날 이름만의 그리스도인

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강도가 만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았다면 그것은 단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이 가르치는 이 교리를 많이 듣고 배우고 또 자기 스스로 읽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실제 생활로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지 않는 실제적 무신론자들이 많다.

그러므로 십계명 중 제1계명을 단지 이해하고 알고 있는 자들과 정말 제1계명을 믿고 순종 하는 자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계명을 단지 이해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기록 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며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이름만의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할 수 없게 된다.

4. 제1계명의 요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믿음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일반적인 잘못 된 생각은 성경을 바로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심지어 무교회 주의자들은 혼자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교회 출석도 하지 않는다. 엘리야 시대에 거짓 하나님인 바알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을 지니라.”고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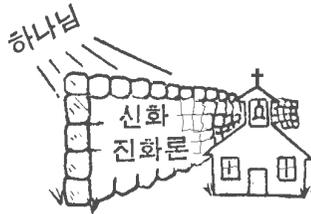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고(마 10:32),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행 2:41-47) 바르지 못한 교회를 떠나야 한다.(고후 6:17) 다시 말해 우리가 먼저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십계명의 제1계명이 요구하는 바는 단지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진실 된 하나님을 바로 믿고 또한 전 생애를 통해 그를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일의 지존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어느 누구든 제1계명이 요구하는 바에 부족한 것이다.

5. 가장 심각한 신앙의 위협은 무신론 사회교육

현재 미국은 법률에 의해 공립학교에서 기독교 신앙교육이 금지되어 있다. 성경공부와 기도는 물론 금지되어 있고 십계명이나 주기도문 같은 것조차도 법으로 부차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비 성경적인 동성애와 같은 것을 합법화 하고 오히려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공립학교에서 가르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공립학교의 무신론 교육



기독교 사립학교의 유신론 교육

미국뿐만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의 공립학교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비호 하에 승인 된 좌경화 된 일부 교사들이 하나님을 없다는 무신론과 유물론 사상을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쇠뇌공작하고 있다. 이것은 일부 교사들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상에 대해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을 방해하고 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자녀들이 학교에서 마땅히 성경을 배워야 하고 진화론이나 동성애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자녀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자녀가 받는 교육에서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최고의 높임을 받도록 기독교학교를 세워야 한다. 그러나 미합중국 대법원은 미국인의 공공생활인 교육영역에서 차지해야 할 정당한 하나님의 위치를 거둬 방해하고 있다.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무시되거나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과 예배가 드러지지 않을 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6. 제1계명은 모든 계명의 기초이며 모든 것

세상에는 기독교란 이름의 수많은 사이비 종파가 있다. 그 가운데서 참 기독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교리이다. 또 제1계명의 의미를 바로 알고 믿는 참 성도는 신앙과 삶을 구별된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또 참 성도는 기독교를 단지 영혼구원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물론 영혼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영혼구원뿐 아니라 정치, 교육, 경제, 문화 등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참 성도의 삶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그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이 한 가지 계명을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된다고 말한 야고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십계명 중 제1계명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며 또한 우리의 최고 의무로서 우리의 삶 전체에서 그분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 중 다른 계명들은 이 같은 제1계명의 다른 국면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다른 아홉 가지 계명은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그를 영화롭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준다.

또 우리가 이 계명들을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기쁘시게 해 드리기 원하며 그의 계명들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의 계명들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고 했다.(요일 5:3) 이것은 또 십계명을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몇몇 계명만을 따로 다루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는 참석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된 계명들(제 5-10 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지고(至高)하심을 깨닫고 그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으며 그를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해 사람들과 관계된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까지는 십계명 중 어느 한 계명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글쓴 이(편저) / 정은표 목사 < 다음에 계속 >